믿음은 존재 구원 소망은 생활 구원

(로마서 5:5~11)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존재 구원 소망은 생활 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존재 구원 소망은 생활 구원”

본문 9~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어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을 이야기한 뒤에 또 다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9절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라고 한 후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도 또 다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유명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낯섭니다. 문장 자체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익숙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척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식구가 되었다면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목함을 근거로 하여 또 얻어야 될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활, 즉 삶의 구원입니다. 일상적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만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는 삶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의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마음에 들어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격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면 인격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본문 9~10절의 말씀을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한 식구가 되었다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삶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삶의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무실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재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은 처녀 총각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만 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총각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 되고, 처녀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총각의 존재 상태로부터 남편의 존재 상태가 되고, 처녀의 존재 상태로부터 아내의 존재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니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더는 결혼 전에 가지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한 남자가 총각 때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혼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내용적으로 존재의 구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삶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존재의 구원을 받았다면 소망으로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라며 살고, 소원하며 살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존재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달라야 합니다. 존재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본문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보자면 존재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의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땅에 있는 것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

망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 되시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두 사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 희망, 바람, 소원은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희망한다는 것은 언제나 한 방향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즉 소망은 짝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짝사랑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혼자 좋아하다가 식어버립니다. 이러한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공통적 문제점은 희망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일이고 마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마약인 이유는 마음의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공백을 채울 수 없는 상태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또한 이로부터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은 육체가 죽어서 더는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오히려 죽음을 바라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무(無)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죽이는 자살을 한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을 채울 거리를 찾고자 하고 목표를 세우고 희망합니다. 희망이라는 임시효과를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나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이 가난하여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의 체면이 있으니 구걸은 하지 못하고 물을 들이마셔서 배를 달랩니다. 세상에서 희망 갖기

는 물을 먹어 일시적으로나마 공복감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가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헛됩니다. 십중팔구는 이루지도 못하고 이룬다고 하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희망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소원에는 결실이 없고 화답이 없고 상응하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참 소망의 기본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진정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셋째는 이 두 가지가 보장됨으로써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소망의 조건입니다. 소망하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졌을 때는 진정으로 마음의 충만함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루는 의식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 되시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만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만으로 채워지기를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면 이것이 짝사랑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연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은 헛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했느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참 소망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낄 수 있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천국에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생각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

버지가 되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사랑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혈연관계인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호적을 파면 남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유전적 혈연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물학적 부자관계로 얽혀있는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을 통과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심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증과 느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이 나의 길임을 믿음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연단을 언급하였습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도달하는 연단의 단계에서 인격이 강인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연약하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앞에서 의식과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 것들은 열려있는 오감을 통해 너무나 쉽게 나의 의식과 마음을 들락거리며 정복하고 유린하고 끌고 갑니다. 나의 존재가 더러움과 악함에 절여지는 일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추하고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모습이 된 이유는 나의 의식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실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의식과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부모자식 간에 생물학적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바라봄이란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 했음을 알고 또한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내가 갈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짝사랑입니다. 한 방향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10억을 가지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10억에게 입이 있다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했기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돈은 바라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희망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형통은 어떠한 확신도 주지 않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전부 짝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약속은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가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절대로 "너는 왜 하늘로 왔느냐? 너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입대해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자대배치를 받는 도중에 열 몇 명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교관이 "너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수도경비사령부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동네 출신이었기에 수도경비사령부로 갈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승철을 불렀는데 제가 잘못 알고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교관이 "야, 이 녀석아 너는 여기에 있을 놈이 아니야 다시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혼자 내려온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주는 희망의 특징입니다. 돈 10억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10억은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너는 10억이 있는 곳에 올 자격이 없어."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10억을 가졌다고 하여도 "내가 언제 너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느냐? 10억을 가지면 마음이 채워지리라는 생각은 너 혼자 한 것 아니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온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과 좋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제안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

지고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보장된 소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며 마음에 영원한 채움을 줄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소망이기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미 기쁘고 즐거워하는 중에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 세상 것을 희망하는 중에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면 삶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삶의 현장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삶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의 형통을 소망하지만 우리는 의식과 마음이 막힘없이 하나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의식이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감으로 느끼고 마음에서는 최고의 좋음으로 느끼는 상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을 추구하며 살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삶의 구원이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믿음에 의해 주어진 구원 위에 구원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쌓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의식하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함이 유지되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가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